

# 미세먼지와 전쟁·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한 올해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올바른 마스크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과학기술 10대 뉴스

- ‘과학기술 이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갈등 등 4건
- ‘연구개발 성과’ 한국인 표준 뇌지도 활용 치매 예측 등 6건

‘미세먼지와 전쟁’,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 성공’ 등이 2018년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26일 7831명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총은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36명의 선정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지난 12·18일 일주일 간 10대 과학기술 뉴스 홈페이지(10news.kofst.or.kr)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후보 뉴스로는 올해 발표된 422개의 과학기술 뉴스 중, 선정위원회의 사전 토의와 심의를 거쳐 30개 항목의 뉴스가 뽑혔다. 투표에 참여자 가운데 과학기술인은 67.5%, 일반국민은 32.5%로 나타났다.

선정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 산업, 경제, 사회 발전 기여도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 기여도 ▲과학기술에의 정책적 관심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의 선정기준을 고려하고, 온라인·모바일 투표 결과를 통한 국민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018년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과학기술 이슈 부문과 연구개발 성과 부문의 온라인·모바일 투표 결과에 과학기술인(과기이슈 40%, 연구개발 60%)과 일반국민(과기이슈 60%, 연구개발 40%)의 가치치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최종 선정에는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가 60%, 온라인·모바일 투표 결과가 40% 반영됐다.

올해 10대 뉴스는 ‘과학기술 이슈’ 부문 4건과 ‘연구개발 성과’ 부문 6건의 총 10건이 선정됐다.

‘과학기술 이슈’ 부문 뉴스는 ▲‘미세먼지와 전쟁’에 과학기술계가 나섰다 ▲플라스틱의 역습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 성공, 대한민국 우주개발 청신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과 에너지 믹스 논란 등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개발 성과’ 부문 뉴스는 ▲미생물로 플라스틱 제조, 폐플라스틱 분해 가능한 기술 개발 ▲차세대 프리미엄 10나노급 D램 기술 개발 ▲세계 최초 ‘3차원 플렉서블 반도체 패키징’ 상용화 기술 확보 ▲내구성 2배 성능의 리튬금속-이온전지 개발 ▲한국인 표준 뇌지도 활용 치매 예측 기술 의료기기 허가 획득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개발 등 6건이 선정됐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미세먼지가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계도 미세먼지와 전쟁에 본격 나서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과학기술계 첫 번째 이슈로 꼽혔다.

지난달에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t급 엔진의 시험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



지난 11월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2)의 엔진 시험발사체.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발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용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한편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에는 환경·에너지 관련 뉴스가 절반이 넘는 6건(과학기술 뉴스 3건, 연구개발 성과 3건)이 선정되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 이슈 부문에서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사태’ 관련 뉴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적·정책적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

했다.

과총 측은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플라스틱 이슈 포럼’(가칭), ‘미세먼지 국민포럼’ 등을 연속 기획 시리즈로 개최해 플라스틱과 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이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10대 과학기술 뉴스는 과총이 지난 2005년부터 한 해 동안 과급효과가 컸던 과학기술 이슈를 선정·발표하는 사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내년 1월 6일 부분일식 ‘우주쇼’

오전 8시 36분 ~ 11시 3분 ... 9시45분 최대

## 전국 어디서나 관측

새해 첫 달부터 달이 해를 일부 가리는 ‘우주 쇼’가 펼쳐진다.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내년 1월 6일과 12월 26일에 부분일식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6일 서울 기준 오전 8시 36분에 달이 해의 위쪽 중앙을 가리기 시작한다. 오전 9시 45분에는 해가 최대로 가려진다. 일식 면적은 서울 기준 태양의 24.2%다. 최대 식분(달에 가려지는 태양 지름의 비율)은 0.363이다.

날씨가 좋다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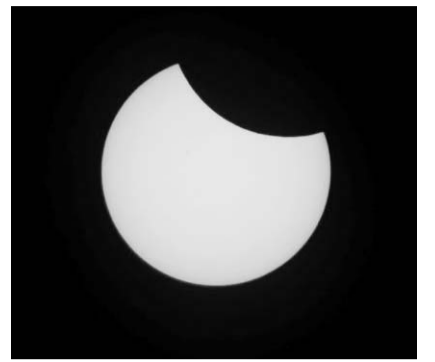
이어 오전 11시 3분에 달이 해와 완전히 떨어져 부분일식 현상이 마무리된다. 이서구 천문연 대국민홍보팀장은 “일식 관측을 위해 태양을 장시간 맨눈으로 보면 눈이 상할 위험이 있다”며 “태양 필터나 여러 겹의 짙은 색 셀로판지 등을 꼭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3일에도 개기일식 천문현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다음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오전 9시 40분께 북한 평양과 강원도 일부다.

제헌절인 7월 17일 새벽에는 부분일식을 짧게 즐길 수 있다. 당일 오전 5시 1분 18초에 시작해 월몰 직전까지 볼 수 있다. 이날 서울 기준 달이 지는 시각은 오전 5시 23분이다.

12월 26일에는 금환일식이 있다. 금환일식은 달의 공전 궤도상 지구와의 거리에 의해 테두리가 남는 걸 말한



부분일식

다. 금반지처럼 보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일식으로 보인다.

서울 기준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해 오후 3시 15분 최대가 된다. 오후 4시 11분에 종료된다.

서울 기준 태양 면적의 13.8%(최대식분 0.245)가 가려진다.

3대 유성우라 불리는 1월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12월 쌍둥이자리 유성우도 예년처럼 볼 수 있다. 사분의자리 유성우는 1월 4일과 5일 새벽에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는 8월 13일 월몰 시각인 오전 3시 18분 이후 좋은 조건에서 관측할 수 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같은 달 14일과 15일 새벽이 관측 최적기다. 달이 밝아 좋은 조건은 아니다.

내년 가장 큰 보름달은 2월 20일 0시 54분에 두둥실 뜬다. 가장 작은 보름달인 9월 14일보다 14% 크게 보인다.

/연합뉴스

## 국립광주과학관 ‘수학나라의 앨리스’ 특별전



국립광주과학관 특별전 ‘수학나라의 앨리스’가 내년 3월 3일까지 광주 북구 옹동동 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매스 아트 작가인 네덜란드 출신 라이노스 로엘루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